

영암군 ‘구림한옥스테이’ 본격 운영

지방소멸기금·군비 등 15억 투입
지역 체류형 관광지 경쟁력 강화
블루 워케이션 모델 자리매김 기대

영암군이 군서면 구림마을에 전통 한옥 숙박 시설 ‘구림한옥스테이’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구림한옥스테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 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인 편의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머무는 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시설로는 넓은 마당을 품은 한옥독채 5동을 포함한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전통문화 체험, 커뮤니티, 휴식 공간 등을 함께 갖춘 복합형 한옥 문화공간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머물며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림마을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이 맡았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기잔랜드 내 대표 숙박시설 ‘기잔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



영암군이 군서면 구림마을에 전통 한옥 숙박시설 ‘구림한옥스테이’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암군 제공

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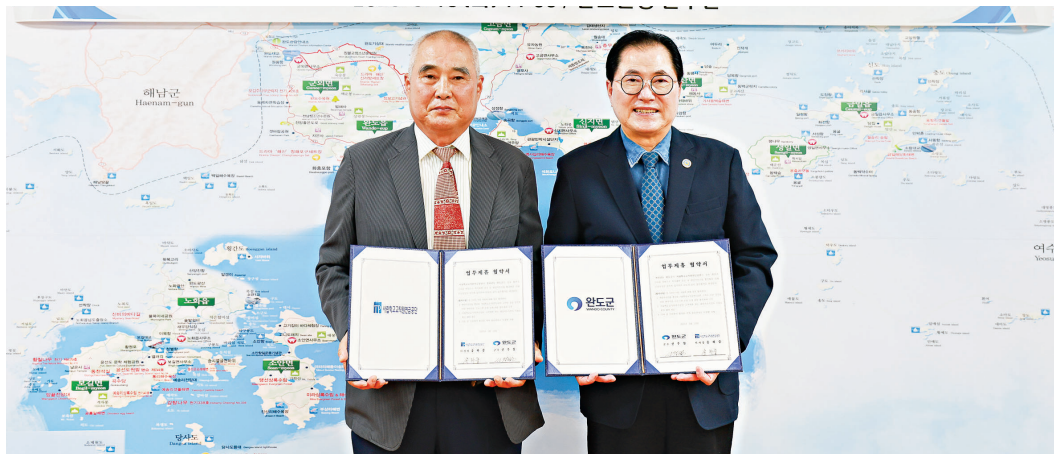
전남도가 지원하는 ‘구림마을 헤리티지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인근 상권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은 △내빈 소개 △경과보고 및 향후 운

영 계획 발표 △기념식 △문화예술 공연 △테이프 커닝식 △기념 식수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구림한옥스테이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림한옥스테이가 소규모 그룹 및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체험의 중심이자 블루 워케이션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림마을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성 기자



완도군이 최근 군수실에서 사학연금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사학연금 회원·가족의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사학연금,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협약

완도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사학연금 회원·가족의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3일 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송하중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학연금 회원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 및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산업 발

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이다.

송하중 사학연금이사장은 “해양치유 선도 지자체인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사학연금 회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국 기자

나주시, 23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위반 시 행정처분·수사 의뢰 병행

나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부정 유통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전남도의 2025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광역 단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현장 방문과 유선 조사, 시스템 이상 거래 내역 확인을 병행해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 현장 점검과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경우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군,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박차

함평군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2년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50억원 등 총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 에듀테인먼트파크를 조성 중이다. 2026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듀테인먼트파크는 생태 교육과 체험형 오락을 융합한 복합 공간으로 △신비로운 나비의 숲 △나비 아트 공작소 △꽃줄기 나비마을 △팔랑팔랑 연구소 등 4개 실내 테마 체험관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아외에는 생태·예술이 결합한 가족 체험 공간과 모험 놀이 시설도 조성해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할 방침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평생학습 기회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개강

목포시는 최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민의 삶과 배움을 잇는 평생학습 플랫폼인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사랑 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시민대학은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며, 목포시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문자격,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강스포츠, 미래정보화 분야의 20여 개 강좌를 목포대 목포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부터 1기 수강생 모집한 결과, 조정기능사(필기), 노인운동지도자, 공감과 소통의 말하기 등 개설된 8개 강좌가 모집 시작 3일 만에 신청이 완료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강의는 오는 8월 1일까지 12주간 운영된다.

개강식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참석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 기회 확대와 주



목포시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민의 삶과 배움을 잇는 평생학습 플랫폼인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민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 기대와 관심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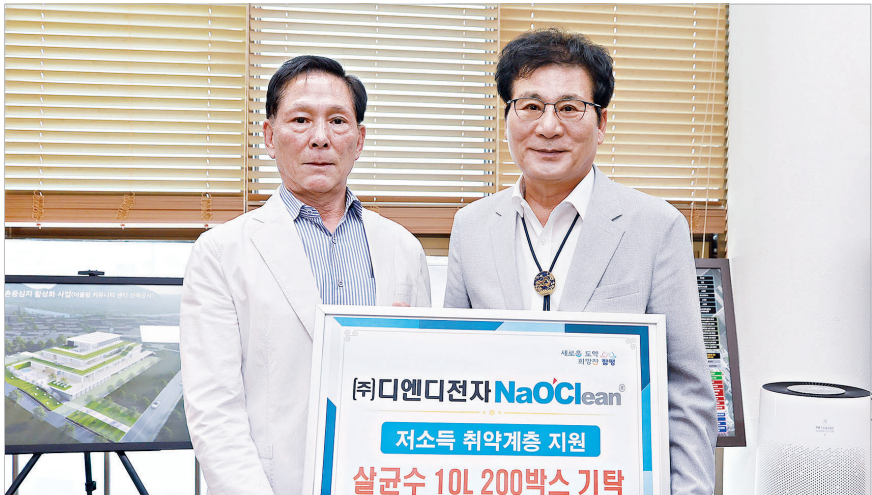
목포시는 시민대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시민대학 1기 출범이 목포시의 평생학습 문화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한 열린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디엔디전자, 함평군에 소독수 200박스 기탁

㈜디엔디전자가 최근 함평군에 살균소독수 200박스를 기탁했다. 살균소독수는 관내 43개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용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살균소독수는 100% 전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무공해 천연 제품으로 방역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록 ㈜디엔디전자 부사장은 “작은 정성이나마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탁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농협 장성·영광 임직원, 상호 고향사랑기부

장성군과 영광군 병농협 임직원이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 병농협 임직원 230명과 영광군 병농협 임직원 240명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기탁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장흥보 농협 영광지부장, 조상길 농협 장성지부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병농협의 적극적인 동참이 지자체 간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성=전일용 기자



강진군 병영면지사협, 사랑의 반찬 나누미

강진군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누미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반찬 나누미 사업은 소외된 이웃들의 식탁에 따뜻한 정을 더하는 병영면의 대표 복지 사업이다.

이날 준비된 반찬 꾸러미에는 반찬 4종과 신선한 제철 과일을 담아 어르신 50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서진자 병영새마을부녀회장은 “부모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반찬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